

4월의 사양관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일반관리

지난 해 여름과 겨울의 이상기후 영향과 구제역으로 인한 사양관리 부실로 젖소 두당 생산성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또한 사육두수도 감소하여 원유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농림부의 원유수급 안정대책에 따라 납유쿼터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연간총량쿼터제 도입, 쿼터 인수인도시 쿼터일부회수제 중단 등으로 낙농가들의 원유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두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유축 도태산차를 늘리는 것이 낙농소득을 향상하는 방안이다. 봄이 되면서 기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하

여 발정과 수태 및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는 번식계절이다. 통계적으로 4~5월 경에 발정이 제일 많고 수태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에 유의하고 기록부에 번식 상황을 꼭 기록해 재발정 확인 및 공태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기적으로 청예사료를 확보하여 급여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주변의 청초를 수확하여 이용하되 청예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7~10일 간에 걸쳐 급여량을 서서히 증가시켜준다.

사양관리

분만이 많은 시기이므로 우사 특히 분만실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개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해주고, 분만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생산된 송아지와 분만한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난 송아지는 생후 1~2주 사이에 전기 제각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각을 실시한다. 분만전·후 전환기 사양관리 동안에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대사성 질병을 줄이는 핵심기술이다. 임신

우의 BCS(신체중실지수)가 3.7 이상으로 과비한 경우 분만 후에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체중의 1.5%를 섭취하지만 신체중실지수가 3.2~3.6으로 적정 신체중실지수(BCS)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료섭취량이 체중의 약 2.0%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분만 전 적정 BCS를 유지하도록 한다. 산유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적정 영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분만 후 비유초기 산유량에 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체중감

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유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 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반추위 내 산도 하락으로 산독증 등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적절한 조농비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TMR 급여농가의 경우 외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방역 및 위생관리

4 월에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여 가축방역에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므로 정기적인 소독과 목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장 내·외 주변과 마을 단위로 공동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세포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체세포 수가 적은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여야만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양질의 우유생산을 위한 수칙으로는 첫째, 착유 전에 착유기의 압력과 맥동수를 항상 점검한다. 둘째, 유두세척 타올은 반드시 한 마리당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셋째, 유두세척을 실시한 후 마른 타올로 건조시킨 다음 1분 이내에 착유기를 부착한다. 넷

째, 착유기 제거 후 즉시 유두침지를 반드시 해준다. 다섯째, 착유한 원유는 빠른 시간 내에 냉각시킨다. 여섯째, 위생관리를 위해 유방 주위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준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CMT나 체세포수 검사를 한다. 여덟째, 비타민 E, 베타케로틴 등을 정기적으로 급여한다. 아홉째, 유두 침지액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체세포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계절별, 치료채취 시간별, 비유단계별,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체세포는 미생물이나 유방염 등의 감염에 따라 그 수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체세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잘 파악, 대체하여 체세포 수 증가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지 및 사료작물

최 근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곡물생산국이 바이오에너지 확대방안으로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 세계 곡물가 인상과 중국 등 제3세계 곡물 수요 급증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가속화로 사료가격 지속 인상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사료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사료원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조사료 역시 수입쿼터 제한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유희 농경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급 조사료 생산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옥수수 파종의 경우, 중부지방은 4월 15일~20일, 남부지방은 4월 5일~10일이 파종적기이므로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 옥수수는 고온작물이므로 생육초기의 저온 상태에서 생육이 늦어지고 잡초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체초제를 파종 후 3일 이내에 골고루 살포하며 추후 필요시마다 제초해 주어야 한다. 호맥 및 연맥 후작으로 옥수수를 파종하려면 옥수수 파종이 늦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파종을 완료하여 수확량을 높인다.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는 파종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하여 ha당 리소 3,000ml+씨마진 1,000ml를 물 1,200l에 풀어서 전면 살포한다. 봄 연맥 및 유채를 4월 상순까지는 ha당 유채 15kg, 연맥 120kg을 파종한다. ☺